

四象人の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宋 一 炳*

A Study on the Symptomatic-pharmacology(病證藥理) Sasang Constiution

Song Il-byung

Dep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Purpose : The correct constitutional diagnosis and the accurate prescription are very important in clinical appl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Lee Je-ma emphasized that symptom is the best clue to diagnose constitution in 『DongYi Suse Bowon』. After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itution's symptoms and the backgrounds of constitutional prescriptions, this paper is to know the correct clinical appl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 : Through the clinical applications of 『DongYi Soose Bowon』 and 『Dongyi Sasang Sinpeun』, the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symptoms and the application of prescription were researched
3. Results & Conclusions
 - 1) The symptom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ere came from the Hyung-Sang Medicine(形象醫學) which were important to mind-body equally and from the summarizing spirit of four Qi such as Warm-Hot-Cool-Cold(溫熱涼寒)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 2) The symptoms of Soeumin and Soyangin are the Cold-Hot symptoms of ingestive food(水穀) and the treatment of symptoms is to control the ascent-descent of up and down. The symptoms of Taeumin and Taeyangin are the Warm-Cool symptoms of Qi-Yack(氣液) and the treatment of symptom is to control the unfasten-fasten of interior and exterior.
- 3) The symptoms of Taeyangin are 'Weak Lower part and Firm Upper part symptom'(下虛上實病證) and 'Blood and Yack Exhausted Symptom'(血液俱耗病證), the symptoms of Soeumin are 'Fall Down Symptom'(下陷病證) and Stomach Cold Symptom(胃寒病證), the symptoms of taeumin is 'Dryness Fever Symptom'(燥熱病證) and 'Interior Fever Symptom'(裏熱病證), the symptoms of Soyangin is 'Fire Fever Symptom'(火熱病證) and 'Interior Fever Symptom'(裏熱病證).
- 4) The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al symptoms are the exterior-interior symptoms classified with nature-emotion and cool-hot, the inclusive control of exterior-interior symptoms with healthy energy, and the classification of ingestive food symptoms and Qi-Yack symptoms.
- 5) The characteristics to treat symptoms are the classification of seriousness and obedience, the use herbs according to each constitutions, and inclusive symptoms control.

초 록

1. 연구 목적

四象醫學 임상은 무엇보다 정확한 體質診斷과 적합한 用藥이 필요하다. 東武는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體質診斷의 端緒로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病證을 관찰하여 用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는 體質病證의 特徵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四象人 고유의 處方이 나오게 되는 배경과 處方의 臨床例를 살펴 四象醫學의 臨床 活用の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病證論」과 「東醫四象新編」의 四象處方 運用의 臨床例를 중심으로 體質 病證의 특징을 파악하고 처방의 사용 정신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四象人 각 病證藥理를 살펴 보아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四象醫學의 病證은 心身を 중시한 形象醫學에서 나왔고 溫熱涼寒의 四象의 要約 精神으로 설명되고 있다.
2. 少陰人과 少陽人 病證은 水穀之氣의 寒熱病證으로 治療 精神은 上下升降의 調節 精神에서 찾을 수 있고, 太陰人과 太陽人 病證은 氣液之氣의 溫涼病證으로 治療 精神은 內外緩束의 調節 精神에서 찾을 수 있다.
3. 四象人의 病證을 개괄하면, 太陽人病證은 下虛上實病證이며 血液俱耗病證이고, 少陰人病證은 下陷病證이며 胃寒病證이고, 太陰人病證은 燥熱病證이며 裏熱病證이고, 少陽人病證은 火熱病證이며 裏熱病證이다.
4. 四象醫學 體質病證의 특징은 性情과 寒熱의 表裏病證 區分 精神, 保命之主를 통한 表裏病證의 包括 精神, 水穀之氣와 氣液之氣 病證의 區分 精神으로 설명하고 있다.
5. 病證의 運營精神은 輕重緩急 및 順逆의 區分 精神, 體質屬性에 따른 藥物 調節 精神, 同出一屬의 포괄적 治療 精神으로 요약할 수 있다.

I. 序 論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고 함경도 함흥에서 의술을 베풀기 시작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 곳곳에서 四象醫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體質에 대해 의문을 가질 정도로 四象醫學은 국민 보편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었다.

이를 통해 體質 인식이 보편화된 장점도 있으나 또한 그에 따른 폐단도 없지 않다. 전문지식을 갖춘 이가 아니면서도 대중들에게 體質을 오도하여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의학을 하는 이들 중에서도 四象醫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처방과 약물을 사용하는 이도 많다¹⁾. 또한 東武의 體質病證藥理에 대한 깊은 인식없이 흔히들 각자의 이론으로 이를 해석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것에 급급해 다른 어떤 학문 분

야보다도 오도되어지는 것이 많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四象醫學의 처방과 약물을 적용하기 위해서 東武가 제시하고 있는 體質病證과 病證藥理를 정확히 이해하고 임상에서 검증한 후에 이를 비판할 수 있고 새로운 처방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體質病證藥理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사상인의 病證의 특징과 用藥의 임상례를 살펴 體質 病證이 성립되는 과정과 用藥의 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II. 本 論

먼저 體質病證²⁾의 중요성을 살피고,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李濟馬가 제시하고 있는 體質病證이 기존의 病證과는 다른 특징을 體質病證藥理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體質病證이 기존 의학에서 나

1)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

2) 체질병증에 대해서는 저자가 「四象人의 病證藥理의 성립과정과 그 운영정신」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다. 宋一炳, 四象人의 病證藥理의 성립과정과 그 운영정신, 사상의학회지, 1996, Vol. 8, No.1, p.1

오는 과정을 통해 病證藥理를 살피기로 한다.

1. 病證의 중요성

四象醫學의 임상 적용은 體質 진단이 선행되고 病證에 맞는 用藥을 선택한다. 東武는 '明知其人 而又明知其證 則應用之藥 必無可疑.'³⁾라 하여 體質을 명확히 알고 體質病證을 명확히 알면 약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體質 진단은 四象醫學 임상의 필수이다.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材幹, 恒心, 完實無病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난해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體質診斷의 최종적 단서는 病證이다. 즉, 病證은 體質別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病證과 病勢의 寒熱까지를 살피야 정확히 體質을 진단할 수 있다.

'少陽人 或有短小靜雅 外形 恰似少陰人者 觀其病勢寒熱 仔細執證 不可誤作少陰人治.'라 하여 少陽人에도 外形은 少陰人 같은 이가 있어 病證을 보아서 진단할 것을 말하며 또한 '太陰少陰人 體形 或略相彷彿 難辨疑似 而觀其病證 則必無不辨.'라 하여 太陰人과 少陰人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病證을 보아서 用藥할 것을 강조하였다. 『辨證論』 말미에 또한 病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人物形容 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 則參互病證 明見無疑然後 可以用藥'라 하여 病證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用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外形이나 心性이 體質診斷의 단서가 되나 최종적 단서는 病證에서 구하여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體質 구분의 근거가 病證이다

르기 때문이며 病證의 차이로 體質이 구분될 수 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2. 四象人 體質病證의 追求 精神

1) 心身病證

四象人 病證은 心身兩面의 차원에서 體質證과 體質病證을 고려한 것으로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는 心の 恒心과 身의 完實無病 조건이 잘 유지되나 이 균형이 깨지면 恒心尤甚證과 大病의 病證이 나타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하게 된다. 이것이 더욱 심해지면 性情의 편급이 생기고 特異病證이 나타나 體質病證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四象人 病證은 기존 의학 병증관과는 달리 心身을 동시에 증시하는 形象醫學精神에서 나온 것이다.

2) 溫熱凉寒 四氣의 要約 精神

證治醫學에서는 寒熱을 증시하나 四象醫學에서는 溫熱凉寒의 四氣로 생리적인 현상을 구분하며 이것이 病證으로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少陽人 大腸出水穀陰寒之氣 不足則胃中納水穀陽熱之氣 必盛也 太陽人 小腸吸氣液陰冷之氣 不足 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 必盛也'라 하여 胃脘의 陽溫之氣로 인해 口壺膈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유추하여 태음인과 소음인에도 확대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행림출판, 1986, p.140

〈표 1〉 溫熱涼寒 四氣의 要約精神

	不足之氣	必盛之氣
太陽人	小腸吸氣液陰冷之氣 不足	胃脘呼氣液陽溫之氣 必盛
少陽人	大腸出水穀陰寒之氣 不足	胃中納水穀陽熱之氣 必盛
太陰人	胃脘呼氣液陽溫之氣 不足	小腸吸氣液陰冷之氣 必盛
少陰人	胃中納水穀陽熱之氣 不足	大腸出水穀陰寒之氣 必盛

이러한 溫熱涼寒의 四氣의 要約精神은 李濟馬 특유의 病證認識精神이다.

3. 體質病證의 認識 背景

李濟馬는 體質病證을 張仲景의 「傷寒論」과 宋·元·明 醫家の 病證에서 단서를 얻었으며 사상인 病證藥理 중 少陰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과 宋·元·明 醫家에 다 밝혀졌고 少陽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과 宋·元·明 醫家에 의해 거의 밝혀졌으며 太陰人의 病證藥理는 張仲景과 宋元明의 諸醫들이 大半을 밝혀졌고 太陽人의 病證藥理는 朱震亨이 그림자만을 얻었다고 하여 기존 의학의 病證과 사상인의 體質病證과의 관계를 밝혔다.

「傷寒論」의 六經病證과 體質病證을 비교해서는 太陽病證 陽明病證은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證에 해당되며 少陽病證은 少陽人 病證이며 三陰病證은 少陰人 病證임을 서술하고 있다. 病因과 관련하여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者 爲病 而但知脾胃水穀 風寒暑濕觸犯者 爲病故 其論病論藥全局 都自少陰人脾胃水穀中出來 而少陽人胃熱證藥間成有焉 至於太陰人病證 則全昧也.」⁴⁾라 하여 예전 의사는 脾胃水穀과 風寒暑濕이 침범하여 병되는 것

만 알아 병과 약을 논한 것이 전부 少陰人 脾胃水穀에서 부터 나왔으며 少陽人 胃熱病證이 간혹 있으며 太陰人 病證에 이르러서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脾胃病證과 水穀之氣 病證은 기존 한의학의 체계에서 존재하는 것이어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의 胃熱證藥은 있으나 氣液之氣病證에 대한 인식은 없어 太陰人, 太陽人 病證이 기존 의학 체계에서는 없다고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氣液之氣病證의 認識은 四象醫學의 結晶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水穀之氣病證과 氣液之氣病證의 區分 精神

四象醫學의 장부 기능은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라 하여 肺로써 呼를 주관하고 肝으로써 吸을 주관하니 肝肺는 呼吸氣液의 門戶이며 脾로써 納하며 腎으로써 出하니 腎脾는 出納水穀의 府庫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四臟의 기능은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太陽人의 口壹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水穀 納於胃 而脾衛之 出於大腸 而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 而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脘 而肺衛之 吸於小腸 而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 而迭爲進退者也.」로 水穀과 氣液의 대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少陽人과 太陽人의 病證과 연결하여 「少陽人 大腸出水穀陰寒之氣 不足 則胃中納水穀陽熱之氣 必盛也 太陽人 小腸吸氣液陰冷之氣 不足 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 必盛也 胃脘陽溫之氣 太盛 則胃脘血液 乾枯 其勢固然也.」라 하여 少陽人은 大腸의 水穀陰寒之氣를 出하는 것이 부족하여 胃의 水穀陽熱之氣를 納하는 것이 반드시 盛하게

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 1986, p.27

되고 太陽人은 小腸의 氣液陰冷之氣를 吸하는 것이 不足하여 胃脘의 氣液陽溫之氣를 呼하는 것이 반드시 盛하게 된다하여 太陽人은 胃脘陽溫之氣가 太盛하여 胃脘血液이 乾枯하여 口壅膈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참고)

水穀之氣와 氣液之氣로 病證을 설명하는데 脾胃의 대소로 결정되는 少陰人과 少陽人은 水穀之氣 障礙로 病證이 발생하며 肝肺의 大小로 결정되는 太陰人과 太陽人은 氣液之氣 障礙로 病證이 발생한다. 이러한 四象人 病證藥理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1) 少陰人 病證藥理

少陰人 病證을 알기 위해 少陰人의 생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이 병리적으로 발전하고 病證으로 발현되는 현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少陰人은 腎大脾小한 장부 특징을 지니며 呼吸出納의 기능에서 出放之氣가 많고 納積之氣가 작은 특징을 띠며 陷降하는 기운의 특성을 지닌다. 氣裏形表의 입장에서 體質의 특성이 몸에서 구조와 기능으로 발현되는데 기운의 형체로는 體形氣像으로 나타나고 人事로는 性質材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少陰人은 膀胱之坐勢 盛壯하고 胸襟之包勢 孤弱한 體形氣像의 구조와 性質은 長於端重하고 材幹은 能於黨與한 기능을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할 때 不安定之心의 恒心과 飲食善化하는 完實無病의 조건을 지니게 되며 만일 喜好不定하면 病證 즉 身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裏寒病으로 접어들게 된다. 少陰人은 陷降하는 기운으로 구조적으로 下陷하는 病證과 기능적으로 속이 냉한 胃寒病證이 생기게 된다. 치료 목표는 하함된 기운을 상승시키고 속이 찬 특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陽暖之氣를 保命之 주로 유지하는 치법을 사용하게 된다.(표. 2참고)

少陰人 表病은 「傷寒論」의 桂枝湯證과 蓄血證에서 病證 인식을 얻었으며 證治醫學의 補中益氣湯을 통해 升陽益氣하는 表病의 관리 정신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表病證은 身熱自汗不出하는 鬱狂證과 身熱自汗出하는 亡陽證으로 구분하여 鬱狂證은 胃實하여 大便秘燥한데 川芎桂枝湯과 芎歸香蘇散의 처방에서 八物君子湯과 獨蔘八物湯으로 변화하여 體質處方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亡陽證은 脾弱하여 自汗이 나는 것으로 黃芪桂枝湯이 升陽益氣湯, 升陽益氣附子湯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表病은 陽氣의 進退強弱으로 輕重을 구분하게 되는데 升陽益氣의 치법을 사용한다.

少陰人 裏病은 「傷寒論」의 理中湯證과 四逆湯證에서 病證 인식의 모델을 얻었으며 증치의학의 平胃散證과 二陣湯證에서 裏病 관리 정신을 얻었다. 裏病은 口中中和而 腹痛泄瀉하는 太陰病과 口中不和而 腹痛泄瀉하는 少陰病으로 구분하여 太陰病에는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寬中湯, 白何烏理中湯, 人蔘陳皮湯을 사용하고 少陰病에는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을 사용한다. 裏病은 冷氣의 聚散輕重으로 輕重을 구분하며 溫胃·建脾하며 降陰하는 治法을 사용한다.

少陰人은 表裏病을 막론하고 陽暖之氣가 保命之 주로 치료의 관건이 된다. 表裏病의 치료법이 확대된 예로는 表病證의 加味八物湯을 胎漏下血症에 사용하는 것과 芎歸香蘇散을 鼻塞症에 사용하는 것에서 表病證의 치료 정신을 엿볼 수 있고 胎衣不出에 藿香正氣散을 妊娠惡阻에 薑朮寬中湯을 사용하는 것에서 裏病證의 치료 정신을 엿볼 수 있다⁵⁾. (표. 3참고)

2) 少陽人 病證藥理

少陽人은 脾大腎小한 장부로 呼吸出納의 기능에서

5)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서울, 文友社, 1926

〈丑 2〉 水穀之氣病證과 氣液之氣病證의 구분

- 四象人 病證의 개괄 -

-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
- 水穀 納於胃而脾衛之 出於大腸而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而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脘而肺衛之 吸於小腸而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而迭爲進退者也.

代 謝		水 穀 代 謝		氣 液 代 謝					
體 質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생리적 특징	臟腑大小	腎大脾小	脾大腎小	肝大肺小	肺大肝小				
	呼吸出納	出放多 納積少	納積多 出放少	吸聚多 呼散少	呼散多 吸聚少				
	升降	陷降	橫升	放降	直升				
건강상태 (體質證)	恒心	不安定之心	懼心	怯心	急迫之心				
	完實無病	消化	大便	汗	小便				
비건강상태	(大病) 恒心尤甚證	飲食不化	恐心(健忘) 大便不通	怕心(怔忡) 陽強堅密	八九日 大便不通, 口中多出沫				
질병상태 (體質病症)	性情偏急	喜好不定	悲哀動中	侈樂無厭	忿怒激外				
	特異病證	泄瀉不止臍下 必如冰冷	大便不通則 胸膈必如烈火	痢病則 小腸之中焦窒塞如霧	噎膈則 胃脘之上焦散豁如風				
	表裏病證 (治法)	腎受熱表 熱病	胃受寒裏寒病	脾受寒表 寒病	胃受熱裏 熱病	胃脘受寒 表寒病	肝受熱裏熱病	外感腰脊病	內觸小腸病
	특징	機能	胃寒病證	火熱病證	燥熱病證	血液俱耗病證			
構造		下陷病證	裏熱病證		下虛上實病證				
치료기준	목표	下陷된 기운을 상승	火熱을 해소	燥熱을 해소	上升된 기운을 하강				
	保命之主	陽暖之氣	陰清之氣	呼散之氣	吸聚之氣				

〈표 3〉 少陰人 病證藥理

	病證모델		四象方	病證 用藥		輕重區分	治法	保命之主	表裏病治療法 擴大例
	傷寒論	證治醫學							
表病	桂枝湯 蓄血證	補中 益氣湯	桂枝湯 八物湯	鬱狂證	身熱自汗不出	陽氣 進退強弱	升陽 益氣	陽 暖之氣	加味八物湯 芎歸香蘇散
					大便秘燥 則胃實				
					川芎桂枝湯, 芎歸香蘇散 → 八物君子湯 → 獨參八物湯				
				亡陽證	身熱自汗出				
					自汗不出 則脾不弱				
					黃芪桂枝湯→升陽益氣湯→升陽益氣附子湯				
裏病	理中湯 四逆湯	平胃散 二陳湯	理中湯 寬中湯	太陰病	口中和而腹痛泄瀉	冷氣 聚散輕重	溫胃 健脾 而 降陰	芎香正氣散 蘇朮寬中湯	
					芎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蘇朮寬中湯, 白何烏理中湯, 人蔘陳皮湯				
				少陰病	口中不和而腹痛泄瀉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				

納積之氣가 많고 出放之氣가 적으며 橫升하는 기운의 특성을 지닌다. 몸의 구조와 기능은 體形氣像과 性質 材幹으로 表現되는데 胸襟之包勢가 盛壯하고 膀胱之 坐勢가 孤弱한 體形氣像의 구조적 특징과 性質은 長於剛武하고 材幹은 能於事務한 기능적 특성을 지닌다. 건강할 때는 懼心の 恒心과 大便善通의 完實無病 조건을 지니며 懼心이 甚하면 恐心이 되어 健忘이 생기고 大便不通의 상태가 되면 人病의 비건강 상태로 表現된다. 悲哀動中하는 性情의 편급현상이 생기면 特異病證과 表裏病 즉, 脾受寒表寒病과 胃受熱裏熱病이 나타나게 된다. 少陽人 病證은 구조적으로 裏熱病證의 특성과 기능적으로는 火熱病證의 특성

을 지닌다. 그러므로 치료는 火熱을 해소하는 방법과 保命之主인 陰清之氣를 도와주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표 2참고)

少陽人 表病證은 「傷寒論」의 大靑龍湯證과 證治醫學의 人蔘敗毒散證에서 煩燥證과 十棗湯과 五靈散을 사용하는 蓄水證을 病證 모델로 삼고 있다. 表病을 少陽傷風證, 結胸, 亡陰證으로 구분하는데 少陽傷風證은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을 사용하고 結胸證에는 荊防導赤散과 川遂를 사용하며 身熱頭痛亡陰證에는 淸熱瀉火하는 豬苓車前子湯과 荊防瀉白散을 사용하고 身寒腹痛亡陰證에는 滋陰降火하는 滑石苦蔘湯과 荊防地黃湯을 사용한다. 이러한 少陽人

表病證은 表陰降氣하는 治법을 사용하는데 表病證은 六味地黃湯에서 荊防地黃湯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病證이 확립되었다.

裏病證은 桂麻各半湯의 瘧狀의 정신과 白虎湯 정신에서 病證 모델을 찾을 수가 있으며 表病證이 脾受寒하여 泄瀉하는 病證이나 裏病證은 胃受熱하여 大便秘의 病證이다. 病證은 胸膈熱證, 上消, 中消, 下消의 消渴病證, 陰虛午熱病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胸膈熱證은 地黃白虎湯을 사용하고 消渴은 涼膈散火湯, 忍冬藤地骨皮湯, 熟地黃苦蔘湯을 사용하고 陰虛午熱證의 경우에는 獨活地黃湯과 十二味地黃湯으로 사용한다. 이런 裏病은 裏陽升氣의 治법을 사용한다. 表裏病을 막론하고 陰清之氣를 保命之主로 치료하여야 한다. (표. 4참고)

3) 太陰人 病證藥理

太陰人은 肝大肺小의 장부와 呼吸出納에서 吸聚之氣가 많고 呼散之氣가 적으며 放降하는 氣의 특성을 지닌다. 腰圍之立勢 盛壯하고 腦能貢之氣勢 孤弱한 體形氣像과 性質은 長於成就하고 材幹은 能於居處한 기능의 특징을 지닌다. 건강할 때는 怯心의 恒心과 汗液通暢의 完實無病 조건을 지니는데 怯心이 甚해지면 怕心을 거쳐 怔忡이 되며 陽剛堅密하여 땀이 나지 않는 비건강상태로 변한다. 修樂無厭한 性情의 편급은 特異病證과 表裏病證 즉, 胃院受寒表寒病과 肝受熱裏熱病을 발현하게 된다. 太陰人은 裏熱病證의 구조적 특성과 燥熱病證의 기능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치료 목표는 燥熱을 해소하는 것에 있으며 保命之主인 呼散之氣를 도와주는 治법을 사용해야 한다. (표. 2참고)

〈표 4〉 少陽人 病證藥理

病證 모델	四象 病證 認識	病證 用藥	表裏處方 認識	本草 引經	同出一屬證		治法	保命 之主						
表病 煩燥 (大清龍湯, 人參敗毒散) 蓄水證 (十棗湯, 五苓散)	脾受寒 則 泄瀉 (甘遂) 亡陰	少陽傷風證 :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六味地黃湯 → 荊防地黃湯	荊芥 防風	浮腫	急治	表陰 降氣	陰清 之氣						
		結胸 : 荊防導赤散, 甘遂												
		身熱頭痛亡陰(清熱瀉火) 豬苓車前子湯, 荊防瀉白散												
		身寒腹痛亡陰(滋陰降火) 滑石苦蔘湯, 荊防地黃湯												
裏病 如瘧狀 (桂麻各半湯) 大便不通 (白虎湯)	胃受熱 則 大便燥 (石膏)	胸膈熱證 : 地黃白虎湯	涼膈散火湯	羌活 獨活	中風	太重	調養爲 主服藥 次之	裏陽 升氣						
		消渴	上消 : 涼膈散火湯						地黃白虎湯	吐血	猶輕			
			中消 : 忍冬藤地骨皮湯									腹瀉	逆證	服藥調 養則易 瘳
			下消 : 熟地黃苦蔘湯											
陰虛午熱證 :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	獨活地黃湯	食滯痞滿	順證											

太陰人 表病은 『傷寒論』의 麻黃湯에서 病證 모델을 얻었으며 氣液之氣의 中濕證으로 麻黃과 薏苡仁이 처방의 主가 되며 背佳頁表病輕證, 寒厥證, 胃脘寒證 瘧病的 病證이 있다. 治법은 中濕證을 발산하는 麻黃湯, 麻黃發表湯, 寒多熱少湯으로 발전하는 治法과 潤燥하는 生脈散, 補肺元湯, 調理補肺元湯, 鹿茸大補湯의 治法을 사용한다.

裏病은 二聖救苦丸, 調中湯, 黑奴丸의 처방 정신에서 발전한 것으로 氣液之氣의 燥熱證으로 葛根과 大黃이 처방의 主가 된다. 病證은 肝熱熱證瘧病, 手指焦黑斑瘡病, 淫一水二病, 虛勞夢泄病, 陰血耗竭病등이 있는데 葛根解肌湯, 葛根承氣湯 계열과 清心蓮子湯, 共振黑元丹, 鹿茸大棗湯 계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裏病을 조절하는 약물로 葛根과 大黃을 중심으로 한 清肺瀉肝湯과 葛根承氣湯이 있으며, 阜角子와 大黃을 중심으로 한 阜角大黃湯이 있으며, 浮萍과 大黃을 중심으로 한 葛根浮萍湯이 있다. 太陰人 病證은 表裏病을 막론하고 呼散之氣를 保命之主로 조절해야 한다.(표. 5참고)

4) 太陽人 病證藥理

太陽人은 肺大肝小한 장부 특성과 呼吸出納에서 呼散之氣가 많고 吸聚之氣가 적으며 直升하는 氣의 특성을 지닌다. 몸에서 腦佳頁之起勢가 盛壯하고 腰圍之立勢가 孤弱한 體形氣像과 性質은 長於疏通하고 材幹은 能於交遇하는 기능적 특성을 지닌다. 건강할 때는 急迫之心의 恒心과 小便旺多한 完實無病 조건을 유지하나 八九日大便不通證, 口中多出沫하는 증상이 있으면 病證으로 변하며 忿怒激外的 성격 편급이 심해지면 질병상태에 접어들어 外感腰脊病과 內觸小腸病을 나타내게 된다.

太陽人 病證은 구조적으로 下虛上實病證의 특성을 띠며 기능적으로는 血液俱耗病證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病證을 해소하기 위해 상승되는 기운을 하강시키고 保命之主인 吸聚之氣를 도와주는 처방을 사용한다.(표. 2참고)

太陽人은 건강할 때 생리 조건이 大便은 滑하면서 體大而多해야 하고 小便은 多하면서 數해야 하며 面色은 白해야 하고 肌肉은 瘦해야 하며 鳩尾下에는 塊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가 小腸吸氣液陰冷之氣가 不足하고 胃脘呼氣液陽溫之氣가 必盛하면 병리조

〈표 5〉 太陰人 病證藥理

	病證모델	病證인식	病證	處方 用藥		表裏兼病	治法	保命之主
表病	麻黃湯	氣液之氣 中濕證 (麻黃, 薏苡仁)	背佳頁表病輕證 寒厥證 胃脘寒證溫病	發散 潤燥	麻黃湯→麻黃發表湯→寒多熱少湯 (熊膽散) 生脈散→補肺元湯→調理肺元湯→鹿茸大補湯	承氣 調胃湯	肺腸升氣	呼散之氣
裏病	二聖救苦丸 調中湯 黑奴丸	氣液之氣 燥熱證 (葛根, 大黃)	肝熱熱證溫病 手指焦黑瘡病 飲一復二病 虛勞夢泄病	葛根解肌湯→葛根承氣湯 清心蓮子湯 拱辰黑元丹 鹿茸大造湯	大黃, 葛根: 清肺瀉肝湯 葛根承氣湯 大黃, 阜角子: 阜角大黃湯 大黃, 浮萍: 葛根浮萍湯	清心 蓮子湯 加 薏苡仁	清肝燥熱	

건이 형성되어 表病은 惡寒 發熱이 있으면서 身體疼痛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輕病이고 이것이 解体이 되면 重病이 된다. 裏病은 寒熱과 疼痛이 있는 경우는 輕病이고 口壹膈이 되면 重病이 되는 것이다. 太陽人은 滋性の 松節 木瓜 柿, 清熱利水하는 葡萄根 獼猴桃, 補肝生陰하는 蚌蛤 鯉魚 蕎麥 果菜之屬등을 사용하여 保命之主인 吸聚之氣를 유지하는 처방을 사용한다.

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東武의 사상인 病證은 體形氣像, 容貌詞氣, 등의 생리부터 病證에 이르기까지 각기 구조와 기능의 특징이 발현되는데 치료에 있어서도 이를 도와주는 방법을 사용한다.(표. 6참고)

5. 表裏病證

1) 性情과 寒熱의 表裏病證의 區分 精神

四象人 體質 病證은 表裏病證으로 구분되는데 甲午版『東醫壽世保元』에서는 四象人의 病證을 太陽人은 '外感腰脊病'과 '內觸小腸病'으로 少陽人은 '外感膀胱病'

과 '內觸大腸病'으로 太陰人은 '外感腦佳頁病'과 '內觸胃脫病'으로 少陰人은 '外感膈病'과 '內觸胃病'으로 病證을 서술하고 있다. 表病은 外感으로 인한 人體 後部의 病으로 설명하며 裏病은 內觸으로 腑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庚子版『東醫壽世保元』의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性は '傷表氣'하고 情은 '傷裏氣'하여 표. 7과 같이 病機를 설명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庚子版『東醫壽世保元』의 表裏病證은 甲午年에 교정되지 않은 太陽人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리와 일치한다. 그러나 甲午版『東醫壽世保元』의 表裏病名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表裏病名이 太陽人은 '外感腰脊病論'과 '內觸小腸病論'으로 少陽人은 '脾受寒表寒病論'과 '胃受熱裏熱病論'으로 太陰人은 '胃脫受寒表寒病論'과 '肝受熱裏熱病論'으로 少陰人은 '腎受熱表熱病論'과 '胃受寒裏寒病論'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논리에 의한 病證 서술이 아니라 임상 경험을 통해 실제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表裏病名을 수정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6〉 太陽人 病證藥理

生理		病理	病證用藥				本草		治療
건강상태		病理條件	表病		裏病		本草		保命之主
			輕病	重病	輕病	重病			
大便	滑, 體大而多	胃脫呼氣液 陽溫之氣 必盛 小腸吸氣液 陰冷之氣 不足	大惡寒發熱 身體疼痛 之證	解体	寒熱疼痛 之證	口壹膈	滋劑	松節 木瓜 柿	吸聚之氣
小便	多, 數						清熱 利水 之劑	葡萄根 獼猴藤	
面色	白								
肌肉	瘦								
鳩尾下	不宜有塊	八九日 大便不通, 口中多出沫	五加皮壯脊湯		獼猴藤植腸湯		補肝 生陰	蚌蛤 鯉魚 蕎麥 果菜之屬	

〈丑 7〉 「太陽人內觸小腸病論」의 性情 病理

		太陽人內觸小腸病論	甲午年 病證論 篇名	東醫壽世保元の 表裏病證
太陽人	表	哀性(傷鼻腰脊)	外感腰脊病	外感腰脊病
	裏	怒情(傷肝小腸)	內觸小腸病	內觸小腸病
太陰人	表	怒性傷口膀胱氣	外感膀胱病	脾受寒表寒病
	裏	哀情傷腎大腸氣	內觸大腸病	胃受熱裏熱病
少陽人	表	喜性傷耳腦佳頁氣	外感腦佳頁病	胃脘受寒表寒病
	裏	樂情傷肺胃脘氣	內觸胃脘病	肝受熱裏熱病
少陰人	表	樂性傷目膈氣	外感膈病	腎受熱表熱病
	裏	喜情傷脾胃氣	內觸胃病	胃受寒裏寒病

2) 保命之主를 통한 表裏病證의 包括的 調節 精神

위와 같이 각 體質病證을 表裏病證으로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體質 病證을 保命之主를 통해 포괄적으로 조절하고자 하였다. 이는 東武公 自註에서 '太陽人以吸聚之氣爲保命之主, 故腰脊小腸爲本而腦佳頁胃脘爲標, 太陰人以呼散之氣爲保命之主, 故腦佳頁胃脘爲本而腰脊小腸爲標, 少陽人以陰清之氣爲保命之主, 故膀胱大腸爲本而膈胃爲標, 少陰人以陽暖之氣爲保命之主, 故膈胃爲本而膀胱大腸爲標'라 하여 太陽人은 吸聚之氣, 太陰人은 呼散之氣, 少陽人은 陰清之氣, 少陰人은 陽暖之氣를 保命之主로 하여 治療의 基本으로 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6. 病證의 特徵

體質 病證은 李濟馬의 독특한 사고 체계에 의해 氣液之氣病證과 水穀之氣病證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太

少陰陽人 각각 고유의 독특한 病證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病證은 아래와 같은 특색을 지니게 된다.

1) 病證의 輕重緩急 및 順逆 區分 精神

病證의 輕重緩急과 順逆을 항시 구분하여 病證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하였다.

少陰人은 4大病, 6大病, 裏病3大證 등으로 나누었는데 太陽證과 太陰證은 順證으로 陽明證과 少陰證은 逆證으로 順逆을 구분하였고, 陽明證과 少陰證에는 急用藥하고 太陽病厥陰證과 太陰病陰毒證은 豫用藥하며 太陽病胃家實證과 太陰病黃疸證은 大用藥해야 한다고 구분하였으며, 裏病의 痞滿, 黃疸, 浮腫은 3大證으로 同出一證이지만 輕重의 구분이 있다고 하였다.

少陽人은 表病의 浮腫, 喘促, 結胸, 痢疾, 寒熱往來胸脇滿의 5大證과 裏病의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의 5大證으로 구분하면서 用藥할 것을 달리 설명하는데 그 중 中風과 吐血은 調養爲主로 하고 服藥

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며 結胸 痢疾 寒熱往來胸脇滿은 服藥調養하면 쉽게 낫는다고 하였다. 病證의 輕重에 따라 服藥, 調養, 攝生을 구분하여 강조하였다. 이렇듯 항상 病證의 輕重과 順逆을 구분하여 치료할 것을 강조하였다.

2) 包括的 病證 調節 精神

病證을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少陰人은 痞滿, 黃疸, 浮腫을 한 病證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少陽人은 表病의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이 한 가지 屬에서 출발한 것으로 表病의 浮腫, 喘促, 結胸, 痢疾, 寒熱往來胸脇滿이 한 가지 屬에서 나온 病證으로 보았다. 또한 질병관리에서 포괄적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少陰人 처방에서 '陽明病雖單黃芪桂皮人蔘芍藥亦可用 少陰病雖單附子芍藥人蔘甘草亦可用 太陽病雖單蘇葉蔥白黃芪桂枝亦可用 太陰病雖單白朮乾薑陳皮藿香亦可用'라 하여 太陽病에는 蘇葉蔥白黃芪桂枝를 사용하고 太陰病에는 白朮乾薑陳皮藿香을 사용하고 陽明病에는 黃芪桂皮人蔘芍藥을 사용하고 少陰病에는 附子芍藥人蔘甘草를 사용하여 病證을 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물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흔히 少陰人은 모든 病證에 人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위와 같이 人蔘도 病證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반드시 體質을 정확히 인식하고 病證에 따라 약을 사용하는 것을 달리해야 한다.

3) 體質屬性에 따른 藥物 調節 精神

약물의 사용에서 體質에 따라 구분하여 약물을 사용한다. 『少陰人腎受熱表熱病論』에서 '麻黃大黃 自是太陰人藥 非少陰人藥 則少陰人病 無論表裏 麻黃大黃 汗下 元非可論'라 하여 麻黃과 大黃은 太陰人藥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약물을 病證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少陽人脾受寒表寒病論』에서 甘遂는 表寒病

의 藥이고 石膏는 裏熱病의 藥으로 表裏藥物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李濟馬는 藥性歌⁶⁾에서 각각의 약제가 지니는 성격과 작용을 四象醫學의 측면에서 體質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III. 結 論

1. 四象醫學의 病證은 心身을 증시한 形象醫學에서 나왔고 溫熱涼寒의 四象的 要約 精神으로 설명되고 있다.
2. 少陰人과 少陽人 病證은 水穀之氣의 寒熱病證으로 治療 精神은 上下升降의 調節 精神에서 찾을 수 있고, 太陰人과 太陽人 病證은 氣液之氣의 溫涼病證으로 治療 精神은 內外緩束의 調節 精神에서 찾을 수 있다.
3. 四象人의 病證을 개괄하면, 太陽人病證은 下虛上實病證이며 血液俱耗病證이고, 少陰人病證은 下陷病證이며 胃寒病證이고, 太陰人病證은 燥熱病證이며 裏熱病證이고, 少陽人病證은 火熱病證이며 裏熱病證이다.
4. 四象醫學 體質病證의 특징은 性情과 寒熱의 表裏病證 區分 精神, 保命之主를 통한 表裏病證의 包括 精神, 水穀之氣와 氣液之氣 病證의 區分 精神으로 설명하고 있다.
5. 病證의 運營精神은 輕重緩急 및 順逆의 區分 精神, 體質屬性에 따른 藥物 調節 精神, 同出一屬의 포괄적 治療 精神으로 요약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1997
2. 宋一炳, 四象人의 病證藥理의 성립과정과 그

- 운영정신, 사상의학회지, Vol. 8, No.1, p.1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행림출판, 1986
4.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서울, 文友社, 1926
5. 洪순용, 이을호 譯述,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73